

### 미스 춘향眞 김지민양



제77회 춘향제의 마지막 행사로 열린 전국 춘향선발대회에서 김지민(18·경기도 광명시·사진)양이 미스 춘향진에 뽑혔다.

김양은 8일 남원시 광한루원에서 열린 춘향선발대회에서 재차 있는 말솜씨와 뛰어난 판소리 실력, 고운 한복 맵시로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1위의 영예를 차지했다.

김양은 "어버이날 부모님께 좋은 선물을 드린 것 같다"며 "춘향의 정절과 기개,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춘향 선은 오선민(21·인천), 미는 한고운(21·서울)양이 각각 차지했고 정·속·현에는 이정애(21·서울), 임진애(22·강원 정선), 오정미(20·서울)양이 선정됐다.

### 가수 비 '타임 100인' 인터넷 투표 1위

NYT, 온라인 투표 결과 보도

미국의 뉴욕타임스(NYT)가 타임(Tim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인터넷 투표를 보도하며 1위에 오른 가수 비(본명 정지훈·25)에 대해 언급했다.

또 비가 올해 가장 많은 네티즌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타임 100'에 오르는 데 실패했지만 향후 선정에 인터넷 투표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7일자 인터넷판 뉴욕타임스는 '타임은 대중적인 취향이 테스트 마켓에 따라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Time learns that popular taste can vary a lot with the test market)'는 제하의 기사에서 "비"는 타임이 올린 200명의 후보 중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뽑혔다"고 했다.

비는 47만174명의 표를 얻어 코미디언 스티븐 콜버트, TV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칸 아이돌'로 스타덤에 오른 산자야 말라카, '해리 포터'의 작가 J.K.롤링, 버락 오바마를 제쳤다고도 전했다.



### 안경환 조선대 교수 베트남 책에 소개

'베트남과 친구들' 380명에 선정

안경환(사진) 조선대 외국어대학 영어과 교수가 최근 베트남 정치출판공사가 발행한 '베트남과 친구들'이라는 책에 소개됐다.

이 책은 '음수사원(飲水思源, 물을 마시며 근원을 생각한다)'의 정신으로 베트남의 독립과 통일, 사회주의 건설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전 세계 인사 380명을 선정해 사진과 함께 공로를 소개한 것.

베트남의 문화를 알리는 한편 해외 협력 인사들에게 감사의 표지를 위해 발행됐다.

380명의 인사에는 안 교수를 비롯해 마오쩌둥·저우언라이·송칭링(쑨원의 부인)·김일성·카스트로·야세르 아라파트·츄스키·인디라 간디·체 게바라·시아누크·수카르노·버트런드 러셀 등이 등재돼 있다.

안 교수는 이 책에서 베트남의 국부로 추앙받고 있는 호찌민 주석의 '육중일기'와 베트남 최고의 문학작품인 응웬 주의 '푸엔 끼에우'를 한글로 번역 출판한 공로로 평화우호훈장과 문화훈장을 받은 인물로 소개됐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아마추어 무선연맹 민주성지클럽 회장 윤규재 씨

## “5·18정신 세계인에 전파, 가슴 뿌듯”

“저희가 보내는 무선통신을 듣고 한반도 반대편에 있는 덴마크나 가까운 일본에서 국립 5·18 묘지를 방문할 때 정말 감동스럽죠. 3~4분 동안의 대화를 통해 수천만리 떨어진 곳에서 5월 광주를 보러 오니 얼마나 흐뭇합니까”

매년 5월이면 지구촌 곳곳에 5·18 민중항쟁을 알리는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민주성지클럽(이하 민주성지클럽·회장 윤규재)은

5월 한 달간 정보통신부 체신청에서 특별호출부호(HL27GDM·한국의 27주년 광주 민주화운동)를 받아 무선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5·18을 알리는 전파를 송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무등산에 송출용 중계기를, 국립 5·18 민주묘역에는 안테나와 무전기 등을 설치했다. 또 50여 명의 회원이 10개 조로

나눠 24시간 동안 5·18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송출한다.

이 클럽 윤규재(48) 회장은 “안타깝게 매일 이런 행사를 갖지 못하지만 단 한 달만이라도 회원 50여 명이 힘을 합쳐 무선을 통해 5·18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테리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 회장은 회사업무와 시간에 쫓겨 매일 파김치가 되지만, 자신이 담당한 송출시간만 되면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한다.

“외국인을 만나려면 시간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새벽 시간을 이용합니다. 피곤하지만, 무선기 앞에만 앉으면 잠이 확 달아나요. 아마 5·18 영령들이 힘을 보태주시는 것 같습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무선의 ‘무(無)’자도 모른 사람이었다. 고등학교 선배의 친구인 민주성지클럽 초대



회장 조용철(50)씨를 우연히 만나 아마추어 무선을 접했고, 클럽에 가입한 뒤 현재 민주성지클럽 8대 회장이 됐다.

“서울서 대학을 다니던 중 5월 초 광주에 내려와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했지만, 서슬퍼런 탄압에 못 이겨 강진으로 피신했었죠. 그리고 며칠 후 군부대가 광주에 투입되고 5·18이 터졌는데 당시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아직도 죄스럽습니다” 이런 사연 탓에 그는 자신의 일보단 민주성지클럽 일에 더 열심이다.

당시 시민군들 통신 재현해 보고파

윤 회장은 올 5·18 27주년 행사에서는 클럽 회원들만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80년 5월 당시 시민군 캐리 주고 받았던 통신을 재현하는 행사를 계획 중에 있다.

당시의 생생한 목소리와 다급한 현장 대화들

(사)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민주성지클럽 윤규재 회장이 8일 오후 국립 5·18묘지 앞에서 무선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5·18을 알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달아 시민군의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재현토록 할 계획이다. 그는 “무선통신 수화기를 들 수 있는 나이까지 활동할 것이고, 그 때까지 이 행사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아마추어 마라톤 손종인씨 마라톤 풀코스 100회 완주

아마추어 마라톤가 마라톤 풀코스(42.195km) 100회 완주의 '대기록'을 달성, 화제가 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외주 파트너사인 ㈜포스코의 손종인(41)씨는 6일 열린 제3회 보성 녹차 마라톤 대회에 출전, 풀코스를 완주했다.

손씨의 이번 풀코스 완주는 100번째로 마라톤을 시작한 지 9년만이다.

1990년 광양제철소 냉면부여에 입사해 지난해 파트너사로 옮긴 손씨는 1999년 건강상의 이유로 처음 마라톤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 정도였지만 5km, 10km, 25km로 차츰 거리를 늘려 나가면서 손씨는 마라톤의 매력에 흠뻑 빠졌고 건강도 완전 회복했다.

손씨는 이후 광양제철소 사내 동아리인 광양마라톤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전국 각지의 마라톤 대회를 쫓아 다니면서 그 역량을 발휘해 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100회의 완주 기록 중 서브3(3시간 이내 완주)를 무려 57회를 달성했다.

“광양 마라톤”과 “100회 마라톤 클럽(www.100thmarathon.co.kr)”의 회원이 된 손씨는 “풀코스 도전시 중도에 포기할 한 번도 하지 않은 덕에 100회 완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달리기를 통해 건강과 삶에 활기까지 되찾았다”고 말했다.

100회 마라톤클럽은 지난 1999년 5월 마라톤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모임으로, 공식마라톤대회에서 100회를 완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마라톤 클럽. 공식 마라톤대회 100회 완주자만 45명이 넘는다.

손씨는 “앞으로 목표는 서브3 100회 달성”이라면서 “마라톤은 몸 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말했다.



### 참다래 연구 14년 '외길 인생' 전남도농기원 조윤섭 박사

참다래(일명 키위) 신품종 육성과 안전생산 기술 개발에 14년 외길 인생을 걸은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시험장 연구원 조윤섭(38) 박사.

조 박사가 참다래 신품종 육성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87년 서울대 농과대학에 입학해 작물육종을 전공하면서부터다.

같은 대학원에서 원예육종 석사학위를 받은 뒤 1994년 전남도농업기술원에 근무를 시작하면서 과수시험장에서 참다래 육종 연구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4년 동안 참다래 육종에만 매달려왔다.

지난해 전남대에서 '참다래 육종과 생리학적 연구' 실적을 인정받아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조 박사는 1994년 설립된 과수연구시험장에서 다래나무 국내의 식물 자원 수집과 신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 프로그램 개발로 새로운 고품질 품종을 육성, 보급해 농가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의 주요 육종 실적으로 자생다래를 새로운 소득 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2002년에 '치약' 품종과 천연 비타민C 함량이 일반 참다래보다 10배 정도 높은 가능성 참다래 '비단'을 육성했다. /송기용기자 song@



### 금호고속, 쌍촌복지관 독거노인에 케네이션

금호고속(대표이사 김성산) 임직원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광주시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200여명의 독거노인들에게 기념품 전달하고 케네이션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다.

### 농협광주본부 '사랑의 꽃바구니 나누기'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전 영업점에서 '사랑의 꽃바구니 나누기' 행사와 함께 우리쌀 소비촉진운동을 펼쳤다.

### '윤상원 추모 광장' 모교에 조성된다

살레시오 중·고 총동문회 추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숨진 윤상원(1950~1980·사진) 열사를 추모하는 광장이 모교에 조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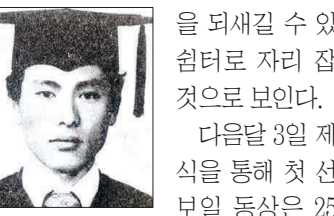
광주 살레시오 중·고 총동문회는 7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 교내 강당 맞은편에 '윤상원 추모 광장'을 조성키로 학교 측과 합의, 동상건립 등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밝혔다.

광장에는 윤 열사의 동상과 조경수 등이 조성돼 재학생들이 선배의 정신

을 되새길 수 있는 쉼터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3일 제막식을 통해 첫 선을 보일 동상은 25회 졸업생인 조각가 김숙빈씨가 윤 열사의 피리 부는 모습을 반신상으로 제작했으며 윤 열사의 최후 연설문과 연보도 새겨진다.

동문회는 윤 열사의 생전 활동과 광장 조성 배경 등을 담은 소책자도 펴낼 방침이다. /이승희기자 golee@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조수현(전남도청)씨 장남 옹환(고양시 교육청)씨 김학건씨 장녀 효진(김해정 아뜰리에 분당점 부원장)양 =12일(토) 오후 1시 상록예당홀 3층 무궁화홀.

▲김재창(함마음 신경정신과원장)씨 장남 태완(군외관)군 임화춘(보성북차체코 사장)씨 장녀 형주양 =12일(토) 오후 1시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

▲김성순씨 장남 동근 김충현(금파광고 교사)씨 장녀 유리양=12일(토) 오후 1시30분 광주서남교회.

▲서용남씨 차남 항범(서울 중앙지검 차주연(광양 광영초교)씨 차녀 은정(서울 성동세부서)양=12일(토) 오후 1시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3층.

▲이중배(성남세무서 과장)씨 장

남 현진군 서채수(영암경찰서 정보과장)씨 장녀 유경양=12일(토)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천년컨벤션웨딩센터 8층.

▲김길진(전 공무원)씨 장남 유진(정형외과 의사)군 백도선(전 장흥군수)씨 장녀 승현(공인회계사)양 =12일(토) 오후 5시 서울시 흥제동 그랜드힐튼호텔 2층 그랜드볼룸.

▲정진석(전 해남군의회 의장)씨 3남 영보(대원건설)군 최정용씨 장녀 진아양=13일(일) 낮 12시30분 해남군 해남읍 부광예식장.

▲최홍식(전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장)씨 차남 권범(광주매일 기자)군 최중문씨 장녀 진선양=13일(일) 낮 12시30분 히딩크호텔 6층 웨딩홀.

▲김중규씨 막내 소원(교원그룹 대리)군 박중삼씨 막내 정원(박정원 과학학원 원장)양=12일(토) 오후 1시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KT 웨딩홀.

**일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사)이주가족복지회 긴급지원 및 상담=동남아 결혼이민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및 문화강좌. 363-2963, www.ejfamily.com 문화강좌는 월·금 오전 10시~낮 12시, 수 오전 10시~오후 3시(점심 제공)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문의 363-2240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지원 및 심리 치료 등 One Stop 서비스. 232-1375, http://forchild.or.kr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무료 상담=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24시간 출장 상담도 가능), 미혼모 시설 입소 안내. 227-8877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문의 652-1366, 434-1366 www.gene-korea.com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1588-9191, 광주 223-9191. 면접 상담은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

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법 검찰청 민원실 2층.

▲파워복지연구회 장애인보장구 무료 상담 및 보급=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뒤 무료 보급. 515-7668

**동창·동문회**

▲영광 해룡 1회(회장 이재구) 홀트데이=12일(토) 오후 4시 모교 교정. 010-4499-2091

▲광덕고 제 4회 졸업 20주년 기념행사는=12일(토) 오후 6시 삼우지구 예술의 전당. 011-607-1318

▲광덕고 제 24회 총동문 체육대회=13일(일) 오전 9시 모교 운동장. 019-511-4969

▲조선대 부속고 화순동문회 임시총회=14일(월) 오후 6시30분 영빈관. 061-371-8292

**모임**

▲해군전우연합회 창단준비위 참가자 모임=11일(금) 오후 7시 광주 히딩크 호텔. 464-5340.cafe.daum.net/gjknva

**모집**

▲광주향교 사서삼경 수강생 모집=월·화·목·금요일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3시, 5시. 주역·논어·맹자·소학. 문의 672-7008

▲광주 북구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가사도우미 교육 참가자 모집=14일부터 18일까지 오후 2시~4시. 가전제품 사용법·도우미 예절 등 교육. 문의 266-8500

▲오월 어머니 가요제 참가자 모집=11일(금) 오후 3시까지. 민중가요 부르기·공연 등의 행사. 문의 광주 YMCA 232-1772

▲아동복지교사 광주지원센터, 아동복지교사 모집=고졸 이상 학습지도 가능자. 문의 262-2780, 3

▲광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무료 훈련생 모집=가사 도우미와 개호 복지사 교육 희망하는 주부 및

고령자. 문의 511-0011~3

▲Ms magic 회원 모집=각종 이벤트·축제·레이크이션 공연 등 마술회원 모집. 227-1991

**부음**

▲김정자씨 별세 변영남(금호타이어 상무)·영관(재목일)씨 모친상 박승원(난이랑 대표)씨 빙모상=발인 10일(목)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분향소. 02-3010-2261

▲이재출씨 별세 규호(광주은행 운암동지점 부지점장)·사행(순천 조례 비스토퍼 대표)씨 부친상=발인 9일(수) 한국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380-3444

광주에서 30분 이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남묘특별분양**

분양문의 (062)521-1100